

올리브 그린 컬러의 레이저컷 가죽 트렌치코트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헤어밴드는
말린 랑두(Malin Landaeus@Select
Vintage Collection), 팔찌는 다이묘(Daimyo).

스타일리스트 / 김예영(Ye Young Kim)
모델 / 말고시아 벨라(Malgosia Bela@Elite Paris)
헤어 / 크리스토프 하센베인(Christoph
Hasenbein@Jed Root Paris)
메이크업 / 마리아 올손(Maria Olsson@Jed
Root Paris)
메니큐어 / 티파니 커수얼(Typhanie
Kersual@Jed Root Paris)
캐스팅 / 피에르조르지오 델 모로(Piergiorgio
del Moro@Streeters NY)
에디터 / 손기호

STELLA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영롱한 눈동자와
신비로운 마스크의 소유자,
슈퍼모델 말고시아 벨라. 그녀가 산뜻한 컬러의
봄옷을 입고 <보그 코리아> 렌즈 앞에 섰다.

PHOTOGRAPHY
RAF STAHELIN

광택 있는 가죽 소재의 쇼트 블머 재킷과 쇼츠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그레이 보디수트는 로샤스(Rochas), 반지는
나탈리 프리고(Natalie Frigo)와 다이묘(Daimyo),
목걸이는 안드라 닌(Anndra Neen).





반짝이는 그린 컬러 셔츠와 쇼츠, 네이비 케이프
코트는 모두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꽃으로 장식한 모자는 말린 랑두(Malin
Landaus@Select Vintage Collection),
그린 컬러의 네트 장식은 더 패밀리 주얼스(The
Family Jewels), 목걸이와 팔찌는 마르케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Valois
Vintage Paris).



두체스 새틴 소재 화이트 트렌치코트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브라운 컬러의 오버 사이즈 라이딩 재킷과 팬츠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크롭트톱은
로샤스(Rochas), 목걸이는 안드라 닐(Anndra
Neen), 커프는 카라 크로닝어(Cara Croninger).





골드 컬러의 브라톱 드레스와 다크 그린 컬러의 미니
케이프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모자는
엘렌 크리스틴 꾸뛰르(Ellen Christine Couture),
목걸이와 귀고리는 마르제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Valois Vintage Paris).



네이버 컬러의 새틴 트렌치 미니 재킷은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보디수트는
더 패밀리 주얼스(The Family Jewels), 커프와
목걸이는 마르케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Valois Vintage Paris),
모자는 말린 랑두(Malin Landaeus@Select
Vintage Collection).

진한 황록색 레이스 셔츠와 반짝이는 라임 컬러
쇼츠는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목걸이는
안드라 닐(Anndra Neen), 커프는 다이묘(Daimyo).

